

| 사회적 대화 국제 동향 |

EU와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 간 연계성 연구 요약

Exploring the connections between EU and
national-level social dialogue (Summary)

손옥이 전문위원

서론

이 연구는 유럽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국가 단위의 사회적 대화 간 연계와 복잡한 다층적 관련성을 살펴본다. 또한 국가 단위 사회적 파트너의 성공적인 참여와 자신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사회적 파트너의 능력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이 연구는 EU 단위 사회적 대화의 산업 간 수평적 연계와 7개 산업분야(건설, 제철·가죽, 화학, 식음료, 지방정부, 철도, 상업)에서의 산업 내 사회적 대화의 수직적 연계를 탐색한다. 이 산업들은 다양한 범위의 산업을 반영하고, EU 규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구조개혁 중이며, 서로 다른 사회적 대화 구조 및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

정책적 맥락

유럽의 사회적 대화는 EU 거버넌스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유럽의 사회적 대화는 유럽 차원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 협상, 산업의 양측(사용자와 근로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행동 등을 포함한다. 유럽 차원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삼자협의(삼자사회정상회담 (Tripartite Social Summit) 포함), 산업 간 사회적 대화, 산업 내 사회적 대화의 세 단계 절차가 있다. ‘연계’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연계’는 EU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회원국의 노사관계제도 둘 다를 포함한 양자 간·삼자 간 응집력 있는 수평적·수직적 상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의 연계는 여러 단위에서의 효과적인 조정 및 시너지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연계는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관련되어 있다. 유럽의 사회적 모델은 유럽·국가·지역 단위 간 상호의존 등 EU 내 고용의 다단계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결과

비록 이 연구는 한정된 숫자의 유럽 산업별 사회적대화위원회 및 11개 회원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럽 차원 및 국가 단위의 산업 간·산업 내 사회적 대화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연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설명한다.

EU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국가단위 사회적 대화의 관련성

* 이 연구는 수평·수직적 연계에 대한 유럽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럽노동조합연합(ETUC)과 산업별 노동조합 단체들은 국가 단위 가맹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맹단체들은 동시에 산업별 또는 여러 산업에 걸친 노동조합 연합인 반면, 유럽 사용자단체의 일반 구성원들은 훨씬 더 다양하며 서로 다른 종류의 가맹단체 및 회원들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경제적 현실과 특정 산업의 28개 회원국에서의 대표성, 노사관계 제도, 유럽 사회적 파트너의 회원 구조를 반영한다.

* EU 차원과 국가 단위 사회적 파트너 단체 간 관련성은 산업 간·산업 내 사회적 대화의 기능 및 우

수성에 기여하며, 유럽 사회적 대화의 주요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 *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상향식 관점과 하향식 관점 모두에서 잘 기능하는 국가 단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최근 일부 EU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 * 소통, 정보의 흐름과 경험의 교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최근 산업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수평적 조정·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그들 자신의 추진계획을 개발해왔다.

참여 및 연계를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

- * 이 연구는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고 조직 특유의 측면(의욕,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기대, 능력, 전문성 등)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구조적 조건(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의 역할, 노사관계구조, 사회적 파트너들의 관계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특정 산업의 규모와 내부적 다양성은 연계를 위한 체계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제혁·가죽 산업은 EU 내 근로자가 4만 명에 불과한 작은 산업인 반면, 상업은 3천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큰 산업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규모, 그들의 대표성, 조직적 견고성의 차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 국가 단위 사회적 대화의 질과 산업 간·산업 내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관계는 이익과 참여의 연계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주요 동인이다. 국가 단위에서 잘 기능하는 사회적 대화와 협력적 관계는 국가 단위 사회적 파트너들이 EU 차원에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 연구결과는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의 매우 큰 격차를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잘 기능하는 안정된 사회적 대화를 하는 회원국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그러한 체계상 조건이 자리 잡지 않은 국가의 사회적 파트너들보다 훨씬 나은 근로조건과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적 제언

- * 산업 단위 양자 간 사회적 대화의 구조 및 관행이 덜 발전한 국가의 사회적 파트너들을 유럽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 도전과제이다. 사회적 파트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훈련 세미나, 역량강화, 지식이전, EU의 정책 및 주제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

단위의 사회적 대화 제도 구축을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관점도 개발해야 한다.

- * 국가 단위 사용자 및 노동조합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EU 차원의 사회적 파트너와 그들의 국가 단위 가맹단체들은 공동의 이익과 우려에 관련한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
- *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하는 사적 관계가 중요하므로, 특히 노사 만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 단위 및 EU 차원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만남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 국가 단위 노사관계제도와 자원, 능력이 매우 중요한 반면, 이들이 참여 및 연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들은 아니다. 지식이전, 자원제공 또는 EU-국가 단위 사회적 파트너 참여의 새로운 형태를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
- *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비추어 보아 사회적 대화의 '촉진자'로서의 EU 집행위원회 역할이 재고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특히 사회적 대화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 * EU 집행위원회와 기타 EU 기관들, Eurofound가 사회적 대화 촉진에 역할을 하면서도,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 EU 기관들은 국가 단위 또는 산업 단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많은 도전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EU 기본 사회권리(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2018년 개정 고용지침(Employment Guidelines) 등 최근의 추진계획들은 국가 단위 사회적 파트너와 국가 간의 관계 및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